“국립공원 사찰보존지, 정부 홍보 부재”

이영경 동국대 경주캠퍼스 교수, 불교포럼서 강연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지난 50년간 정부는 전통사찰보존지가 사유지라는 사실과 과거 1000년 동안 사찰 관리로 인해 사찰보존지의 우수한 생태환경, 문화자원이 보존돼온 사실을 국민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다. 국립공원 안내판에 사찰보존지가 표시되지 않고, 사유지로서 국립공원 이용에 제공된다는 점과 종교지역이기에 이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는 것도 명시되지 않는다. 나아가 ‘국립공원은 국민 여러분의 것입니다’ 라는 문구가 있어 탐방객은 자신이 방문하는 지역이 사찰이 소유한 사유지라는 점을 전혀 모르고 있다.”

최근 불교계를 배제한 환경부의 일방적 자연공원법 개정 추진, 정부의 방치로 인한 문화재관람료 논란 등이 한국불교 현안으로 대두됐다. 이런 가운데 국립공원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영경 동국대 경주캠퍼스 조경학과 교수는 11월 21일 서울 그랜드앰배서더에서 열린 30차 불교포럼서 ‘국립공원 정책과 전통사찰의 가치’를 주제로 이같이 강연했다. 이 교수는 강연을 통해 사유지에 대한 존중보다는 이용자의 편의만을 생각하는 현재의 국립공원 정책을 비판하고, 복합문화유산인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한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먼저 해묵은 문화재관람료 논란의 배경을 △면적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 부족 △국립공원 내 사유지 재산권 제한 △사찰 종교기능 존중 부족 △사찰보존지 국민 홍보 부재 등으로 정리했다.

국립공원 정책 문제점 지적
사찰지 중심 공원 지정하고
보상 없이 50여 년간 이용해
“종교가치 훼손 위험 직면”

그러면서 이 교수는 가장 큰 문제를 홍보 부재로 꼽은 뒤 “전통사찰보존지를 중심으로 국립공원이 지정된 이유는 사찰보존지가 다른 산림보다 생태적으로 우수하고 다양한 자원이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이라며 “사찰보존지를 잘 보존해온 소유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가 상식적이지만 사회적 인식은 전혀 없다. 정부는 사유지에 대해 형평성 있는 대책이나 보상 없이 50년간 국립공원이라는 명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경 동국대 교수가 30차 불교포럼서 현행 국립공원 정책의 문제점을 짚고,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생태가치만 조명… 종교 위축

이 교수는 이어 현행 국립공원 정책의 문제점을 보호지역 내 토착민의 권리에 대한 인식 부족, 사찰을 규제대상으로 보는 수직적 공원 관리, 사찰보존지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관리 카테고리 적용으로 분류했다. 특히 국립공원이 2005년 이전 관리 카테고리 V였으나 변경작업을 거쳐 2017년 카테고리 II로 변경된 것을 집중 분석했다.

그에 따르면 카테고리 II 보호지역은 자연적인 상태를 위해 인간 활동을 최소화하는 곳이다. 하지만 카테고리 V는 문화경관으로서 자연보존과 함께 지속적인 인간과의 상호작용에 관련한 다른 가치(문화가치, 문화적 관련성)도 보호 유지해야 한다. 즉 카테고리 변경으로 인해 종교가치나 역사문화가치 등이 생태가치보다 덜 중요하게 취급받는다는 게 이 교수 설명이다.

이 교수는 “실제 2012년 작성된 오대산 국립공원 보존관리계획을 보면 관리목표를 자연환경 보존과 생태복지로 설정하고, 문화유산관련 예산도 매우 적다”면서 “문화유산관련 예산은 공원자연보존 분야 총 예산 63억 원 중 1.48%, 지역사회협력분야 총 예산 28억 원 중 3.51%로 계획됐다”고 강조했다.

정부-조계종 공동관리 필요

이 교수는 또한 “앞선 연구결과서 사찰보존지 방문자들은 사찰보존지의 유산가치를 가장 높게 평가하는 반면에 종교가치를 가장 낮게 혹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국립공원 내 전통사찰보존지의 종교가치가 훼손위험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정부는 조계종단과 공동으로 전통사찰보존지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동으로 관리를 수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이와 함께 조계종단이 △불교계 내부 정보 공유 및 교육 강화 △사찰보존지 가치 및 문화경관 보존을 위한 연구수행 △사찰지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제반 기준 마련 △사찰보존지 가치 및 문화경관 보존을 위한 내부 관리체제 확립 △공원지역 내 사유지 소유자들과의 재산권 보상 및 지원을 위한 연대 결성 등에 힘 쏟을 것을 주문했다.

사노위, “이주노동자는 토끼가 아니다”

11월 19일 출입국관리소 이주민 강제단속 비판


故딴저테이 노동자 영정을 든 스님 뒤로 사노위 스님 등 오체투지 행렬이 이어졌다.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 씨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토끼몰이식 강제단속 과정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주노동자는 토끼가 아닙니다. 짐승도 아닙니다. 故딴저테이 노동자 사망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살인단속 중단이 이뤄져야 합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찬, 이하 사노위)는 11월 19일 서울 조계사 일주문부터 청와대까지 ‘살인단속 미얀마 딴저테이 노동자 진상규명을 위한 오체투지’를 진행하고, 이주노동자 강제단속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사노위 소속 실천위원 스님들과 ‘살인단속 규탄 및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 씨 사망사건 대책위원회’ ·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관계자를 비롯,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위원장 등 30여 명이 동참했다.

미얀마 출신의 이주노동자 故딴저테이(25) 씨는 지난 8월 22일 김포의 한 건설현장서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 단속 중에 사망했다. 뇌사 상태에 빠진 故딴저테이 씨가 한국인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한 단순 미담으로만 알려졌지만, 해당 죽음에 많은 의문점이 있다는 것이 사노위 측 입장이다.

혜찬 스님은 이 자리서 “‘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란 말에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도 포함돼야 한다. 오늘 오체투지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故딴저테이 노동자 사건을 알리고, 진실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사노위는 전날인 11월 18일까지 법무부와 김포경찰서 측에 단속과정이 담긴 원본 CCTV영상과 단속보고서 등을 요구했지만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고인이 단속을 피하다 발을 헛디뎌 추락했다고 밝히고 사건을 종결한 바 있다.

김지원 기자

방탄소년단 팬들, ‘나눔의집’ 후원 잇달아

트위터 커뮤니티 등 SNS 통한 후원운동도

‘위안부’ 피해할머니를 응원하는 BTS 팬들의 후원이 줄을 잇고 있다.

‘위안부’ 피해할머니 후원시설인 나눔의집(원장 원행)은 “최근 방탄소년단(이하 BTS)의 팬들의 기부와 응원 메시지가 계속 접수되고 있다. 올해 BTS 이름으로 후원된 금액은 약 1천 400여만 원이다”고 11월 18일 밝혔다.

2015년부터 시작된 BTS 팬들의 후원은 올해 11월을 기점으로 접수 건수가 늘었다. 나눔의집 관계자는 “국내 팬들 기준으로 11월 8일부터 15일까지 일주일간 약 130건의 총 350만원 후원금이 입금됐다. 11월 16일부터는 해외팬들도 5달러, 10달러의 소액 후원에 동참하고 있으며, 최근까지 160명 이상이 후원에 동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1월 8일 유니버셜뮤직재팬이 BTS 멤버 지민이 착용한 ‘광복절 티셔츠’ 디자인을 언급하며 출연 취소를 통보한 것과 관련, 팬들이 BTS를 여전히 지지하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고통받았던 일본군 성노예 피해할머니들을 응원하는 의미로 후원하는 것으로 안다”고 나눔의집 측은 전했다.

이 같은 BTS 해외 팬들의 후원은 트위터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이들은 트위터 커뮤니티 ‘the Twitter handle @doolsetbangtan’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돕고 역사 바로 알기 및 후원운동 참여를 독려한다.

나눔의집에 후원금을 낸 크리스티나 듀란은 “나는 BTS를 대신해 후원했다. 우리는 어두운 시기였지만 그 역사가 반드시 기억돼야 한다고 믿는다. 그래야 우리는 미래에 잔혹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안신권 나눔의집 소장은 “BTS 팬들의 후원이 미국, 유럽, 아시아, 남미까지 접수되고 있다”며 “단순히 후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일본 침략의 역사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기억하자는 또 다른 운동이다”고 강조했다. 김지원 기자

“동국대 발전, 기부자 공덕 덕분”

동국대, 20일 기부 감사의 밤

동국대 발전을 위해 기부금을 희사한 기부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행사가 열렸다. 동국대(총장 보광)는 11월 20일 그랜드앰배서더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학교 발전에 기여한 기부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기부자 초청 감사의 밤’을 개최했다.

기부자들과 가족 등을 초청한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자광 스님, 총장 보광 스님, 전영화 총동창회장, 전순표 세스코 회장, 박준형 신라교역 회장 등 사부대중 400여명이 참석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치사를 통해 “동국대의 도약과 발전은 우리 불교의 밝은 미래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사부대중 모두가 동국대와 한국 불교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사장 자광 스님은 “오늘 이 자리는 지금까지 동국대를 위해 아낌없이 불사를 해주신 모든 분들을 위해 마련한 자리로 학교에서 준비한 여러 행사를 즐기고 가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동국대는 11월 20일 학교 발전에 기여한 기부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기부자 초청 감사의 밤’을 개최했다.

총장 보광 스님은 환영사에서 “개교 112주년을 맞은 올해는 그동안의 노력들이 좋은 성과로 나타난 의미 있는 한 해였다. 무엇보다도 로터스관 건립 기공식을 거행해 동국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으며, 최근 각종 대외평가에서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하기도 했다”며 “이러한 동국대의 변화와 발전은 모든 동국가족의 노력과 기부자들의 지속적인 후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전영화 총동창회장은 “앞으로 동국대가 대한민국 대표 사학에서 세계 명문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동문 모두의 각별한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야단법석’ 타악 공연을 시작으로 연극학부 학생들의 뮤지컬 ‘렌트’ 갈라, 음악원 교수들의 성악 공연 등 다채로운 공연이 진행됐다. 신성민 기자

